숲정이

연중 제28주일
제1독서 : 이사 25, 6-10 a
제2독서 : 필립4, 12-14. 19-20
복 음 : 마태 22, 1-14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마태 22, 14).

강 론

"초청장"

이 성 우 신부／신풍천주교회

신랑 창조주의 아들 어린양 군과
신부 피조물의 딸 슬기 양이
영원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셔서 기쁨을 함께해주십시오.
일시 : 매월 매일 수시
장소 : 하늘 나라 교회

"여우가 두루미를 식사에 초대했다.

'두루미님!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여우는 납작한 접시에 국을 담아서 두루미에게 내어 놓았다. 그러나 부리가 뾰족한 두루미는 하나도 먹을 수 없었다. 성이 난 두루미도 여우를 초대했다. 목이 좁고 긴 병에 맛있는 고기를 잔뜩 넣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의 한 토막이다.

거의 매일같이 날아드는 초대장. 사소한 식사부터 각종 애경사, '개업' '입주' '운동회' '발표회' '바자회' 등등. 무시해도 좋을 것부터 꼭 응해야 할 초대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으레히 가야 할 곳도 가고 싶지 않거나 갈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한두 번 가 보아서 '여우나 두루미의 식사' 같은 꼴을 당하다 보면 초대에 응하고 싶지 않은 때가 많은 터이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하늘 나라를 잔치집에 비유하신다. 묻혀 있는 보물, 값진 진주가 가득한 나라(마태13,44-46),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모두 다 배부르는 잔치(20,1-16), 나눔과 섬김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잔치(14,13-21)에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

한번 가 볼만한 잔치가 아닌가? 이 초청이 우리가 '응하고 싶었고' '응할 수 있고' '응해야 할' 삼박자가 꼭 맞는 초청이라면 만사 제쳐 놓고 채비를 차려야 할 것이다. 기름과 등불을 챙겨 새사람으로 갈아 입고 나서야 할게다.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닌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입맛 댕기는 계절이 왔다.

소 리

이른바 '우르과이 라운드'

이름부터가 우리네 농민들 귀에는 해괴하게 울리고 있을터인 우르과이 라운드란, 쉽게 말하면 여러 나라 농민들이 세계 무대에서 제 힘대로 뛰어서 벌어먹도록 각 나라는 내버려 두자는 약속이다. 관세 보호나 농자금 지원 등을 하지 않고 말이다. 이런 농민들 자신끼리의 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누가 세계적으로 보다 잘 팔리는 농산물을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에 달렸음은 누구에게나 환한 상식이다. 무역학에 깜무식인 내가 무슨 아는 소리 할 처지는 못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네 농민들이 선진국 농민들보다 좋은 품질이고도 값싼 농산물을 보다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생산 조건은 결코 못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린애 울음소리도 끊긴 적막강산이 바로 우리네 농촌이 아닌가?

우리 농업이 왜 이런 허약체가 되었는지는 위정자들 자신이 잘 안다. 우리는 농업국이었는데도 해방 이후 농민 편에서 다스린 치자가 하나도 없었다. 저 '새마을 운동' 조차 농민에게는 일종의 속임수였음을 이제 알 만큼은 알게 된 농민들이기도 하다. 제 몫을 제가 지켜낼 만큼 똑똑하게 된 셈이다. 그래서 위정자는 지금 '우르과이 라운드' 홍정에서 별 수 없이 이 나라 농민을 편들어 보이고는 있지만, 문제는 재벌 장사치의 큰 손들을 과연 뿌리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제 실속 검은 큰 손들과 손잡아버리고 나서도, 마치 나라살림의 큰 솜씨인 양 둘러붙이게 될 때, 그때는 이 나라 농촌의 총각부터가(세계 농촌 중에서 유일하게 장가도 못가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제 목통까지 짓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도 설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숲정이 산책

■ 전주교구의 성인들－마지막회

성 손선지와 성 정원지

＊ 성 손선지(베드로, 1819~1866)

일명 '승훈'으로도 불렸던 손선지 베드로는 충남 임천의 고인돌(현 부여군 충화면 지석리)에서 태어났다. 결혼해서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 47세의 나이에 순교한 성인은 16세의 어린 나이로 전교회장의 직분을 맡아 죽을 때까지 이 직을 충실히 수행했다. 1866년 박해 때에는 전주 대성동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의 집은 많은 교우들의 강당이 되어 기도드리고 교리문답을 배우기도 했다. 12월 5일 밤. 포졸들이 들이닥쳐 성인을 끌고 3㎞떨어진 구진퍼리 주막까지 갔는데 이미 다른 교우들도 붙잡혀 와 있었다. 성인의 어머니는 그 마을 관리인 오사현을 시켜 손을 써보려 했으나 성인은 완강히 거절했다. 오히려 "나는 죽을 결심을 했네. 그런데 자네가 하는 일이 내게는 큰 유혹이 되니 가주게" 하며 순교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1866년 12월 13일 참수형을 선고받은 성인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며 입은 옷을 다른 교우들에게 내어주고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가오. 이 옷은 더 이상 내게 소용이 없으니 이 옷을 입으시오." 결국 성인은 정문호, 한원서 등과 함께 숲정이에서 치명했다. 성인의 유해는 치명장 옆 전주천을 건너 부용바위(지금의 진북사) 밑에 가매장되었다가 아들 요한에 의해 다리실(천호)에 안장되었다.

＊ 성 정원지(베드로, 1845~1866)

정원지 베드로는 일명 '원조'라고도 불리었는데 충청도 진장에서 태중교우로 출생하여 아버지는 일찍 순교하였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전라도 지방을 전전하다가 성지동 조화서의 집에 방을 빌어 살았다. 1866년 조화서 베드로가 잡히던 날 성인은 산으로 피신하였으나 포졸들에게 잡히어 조화서 등 일행 7명과 함께 구진퍼리 주막으로 끌려가 하룻밤을 묵고 전주 감영으로 옮겨졌다. 나이가 어린 그는 처음 잡혔을 때 포졸이 "천주교를 믿느냐?" 하자 엉겁결에 그는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하고 대답했다. 옆에 있던 조화서가 호되게 그를 나무라자 "무서워서 그랬어요" 하고는 "저도 천주교를 믿습니다" 하고 큰소리로 말했다. 12월 13일 동료들과 함께 숲정이에서 치명하니 그의 나이 21세였다.

성인은 다섯 동료들과 함께 망나니의 칼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한결같이 슬픈 빛을 띠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누구를 만날 기쁨에 상기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얘기했다.

"거, 놀라운 일이군. 죽음 앞에 저토록 초연할 수 있을까?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다니…." 또, 한 증인은 이렇게 증언했다.

"그들은 한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고.

미사해설 15

"앉음의 의미"

우리는 전례가 진행되는 동안 상당한 시간을 앉아 있게 된다. 이는 그저 쉬기 위함이 아니다. 편히 쉬기 위함이라면 안락의자나 흔들의자가 적합하리라. 하지만 전례적 행위로서의 앉음은 오직 하느님에게만 온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아무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느님과 나만이 함께하기 위함이다. 등뼈를 곧바로 세우고 온몸에 힘을 뺀 채 차분히 앉아 온 정신과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해 있으면 잊었던 자신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움직이며 살 때 들을 수 없던 소리가 들리고, 눈을 두리번거릴 때 볼 수 없던 것들이 보인다. 평상시 전혀 느껴보지 못한 상태를 체험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꼭 필요한 말을 하고 꼭 들어야 할 말을 들으며 참으로 진솔한 것들을 체험한다. 그래서 자연 속에 내가 누구며, 하느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경우 모든 것을 밀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을 필요가 있다. 내 자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느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또 참으로 할말을 하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느껴야 할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모습을 더욱 정확히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해야 될 일을 하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앉아 있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들은 끝없는 시행착오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끝내 발견하지 못한 채 헛수고만 하게 된다. 그래서 악마는 계속 우리에게 달리라고 재촉한다. 가만히 앉아 있음은 무능하고 못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속삭인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삶이야말로 능력있는 사람들의 멋진 삶이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그는 끝내 허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이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그러나 조용히 평온하게 앉아 있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지금 나는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음을….

해 외 여 행
〈성지순례 · 신혼여행〉
고 려 관 광
이 종 길(요한)
☎ 87-9797
(기린로 병무청 시거리)

주단·침구·혼수 전문
부 인 주 단
김 한 중(요 한)
황 인 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옆
☎ 84-7294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또
☎ 84-2628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 · 숙녀화
아동화 · 특수화 } 총판매장(공장직영)
김 문 식(베드로)
☎ 82-3118
풍남문 ← 흔길 → 송약국 시거리

잠 깐!

주(週) 3~4회 천주교 고정란(固整欄) 신설

-전북일보 월·수(목)·토 7면 : 성당의 종소리

바울로가 만약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무슨 일을 했을까? 신문 방송을 만들었을 것이다.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넓은 지역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물(利器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방송국 우리의 신문이 없는 현시점에서는 기존의 신문과 방송을 최대한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언론에 종사하는 신도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그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다행히 우리 지역 언론은 교 어느 지역의 언론보다 매스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에 매우 협조적이다. 특히 '전주교구 가톨릭 언론인회'(C. J. C. 회장 : 최공엽)를 주축으로 한 언론인들의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금번 이들의 협조와 제안으로 전북일보 월, 수(목), 토 일자 7면에 '성당의 종소리'라는 천주교 고정란을 신설하게 되었다. 제1차 필진은 다음과 같다.

월 : 정인섭(시인·해성고 교사), 내용-종교와 사회

수 : 최용준(원평 주임신부), 내용-명상　　토 : 홍보국, 내용-교회 전례, 교회 소식.

교우 여러분의 애독과 성원, 애정어린 비판을 부탁한다. 또한 이 고정란에 함께하시고 싶으신 분들의 좋은 글을 기다린다. 원고량 : 원고지 3매 반(편지지 한장), 보내실 곳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청 홍보국 (0652)85-0041

교 구 소 식

* 엄마들을 위한 영화 '고백의 비밀' 상영 : 10월22일(월)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1. 사무감사 : 17일(수) 오전-나바위, 고산. 오후-둔율동, 덕진. 18일(목)오전-여산, 장수. 오후-동산, 서학동. 19일(금) 오전-장계, 수류. 오후-서신, 복자.
2. 10월 21일 전교의 날 : 2차 헌금 있습니다.
3. 레지아 회의 : 10월 21일 오후2시 가톨릭센타 본관 1층(휴게실 옆 강당).
4. 베소라 성서 저녁반 개강 안내 : 10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7시~9시 로마서 강해 가톨릭센타 3층 85-4978.
5. 여성연합회 피정 : 10월 15일(월) 오전9시~17시 가톨릭센타 대상-해당임원과 일반신자 강사-지은정(전북대 교수) 김정회(전남대 교수) 주제-'암과 저항력' '오늘의 삶' 미사 필기도구 회비-4,000원.
6. 파티마 성모수녀회 성소모임 : 매월 셋째·넷째주일 오후2시 본원(0331)8-5883.
7. 경로수녀회 성소피정 : 10월 20일(토) 오후5시-21일 오후5시 본원(0431)56-6697.
8. 천주의 섭리회 성소피정 : 10월 20일(토) 오후5시~21일 오후4시 본원(0331)292-3633 회비-5,000원.

※ 축! 영명 : 14일(성갈리스도)정태현 신부님, 19일(십자가의 성바오로) 김준호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식생활 개선 언제까지 미룰텐가-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음식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오늘날 만성병의 홍수시대에 사는 우리의 식생활-노란통배추, 화학소금, 조미료에 찌든 입맛, 송편보다 핫도그를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제는 국적있는 식생활로 되돌아가 건강도 지키고 전통도 지킵시다.

※ 치당 김귀완 선생(숲정이 제호 필자) 서예전 : 10월 13일~19일 전북예술회관.

송화동 성전건립 기금 마련 사랑 나눔 큰 잔치
축 복 권
2천원으로 축복과 승용차를…
축복상 1명 : 승용차(프라이드)
1 등 1명 : 피아노
2 등 1명 : 오디오 셋트
3 등 1명 : 냉장고
기타 300여명 기념상품
※추첨일 : 1990. 11. 5(월) 오후3시
판매처 : 각 본당 사무실

양재·한복·홈패션
노 라 노 학 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앞·민정당사옆
☎86-2715

샘 물
좋은 生水는 직접 시음을 해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주 85-4205. 군산 64-4481 이리 52-5595

웨딩 드레스 전문점
신 부 의 집
최 영 자 (헬레나)
☎6-6951
동서관통로 신탁은행 앞

결혼양복·Y 샤쓰
킹-테크
안 성 태 (다미아노)
황 인 자 (우 술 라)
전주시 고사동 1가 95
경전라사 한성여관 중간
☎ 84-2804

은하체육관 (태권도)
주소 : 서완산동 1가 201번지 효자주공 APT 3단지옆
전화 : 83-6482
관장 : 김 기 남 (바오로)
이 난 영 (헬레나)

라인인테리어
실내·외 장식 디자인
구 원 (요 한)
구 만 석 (토마스)
구 충 주 (노렌조)
☎ (0653) 856-1777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 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 희 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승 남

경 본당의 날 및 L・M옥의행사 축

1. 예비자 제2반 모집 : 28일까지(구역・반별로 보고 해주세요).
2. 가정방문 : 16일 오전－인후12 오후－인후11, 중노1가11 • 17일 오전－중노1가10, 인후10 오후－중노1가9, 인후9(17반) • 18일 오전－중노1가8 오후－중노1가7반 • 19일 오전－인후8반, 중노1가6반 오후－인후7반, 중노1가7반 • 19일 오전－인후8반, 중노1가6반 오후－인후7반, 중노1가5반. 3. 창단된 LM : • 구원의 협조자이신 모후－단장 : 안비비안나 부단장 : 최세시리아, 서기 : 조세로비아, 회계 : 황데레사. 4. M, E : 4텀모임, 10월18일 8시 정진우 씨 댁. 5. 모임 : 부녀회 월례회－16일, 어머니미사 후. • 기도회 : 18일 저녁미사 후. 6. 형제회 : 20일, 오후2시. 7. 베로리성서 : 월요일, 전10시30분. 8. 금주 청소 : 중노1가 1, 2반□ 지난주 봉헌금 : 1,039,910원 □ 교무금 : 647,00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 21일 전교주일 : 2차헌금 있습니다.
1. 꾸리아 : 오늘 오후2시. 2. 요셉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청년회 : 오늘 저녁미사 후. 4. 부녀회 : 18일 오전10 : 30분.
5. 구역 분과회 : 20일 오전10시.
6. 성우회 : 21일 공식미사 후.
7. 가정방문 : 17일 태평동7반, 18일 태평동8반, 19일 완산동. ＊ 꾸리아 산하 Pr 간부교육 10월18일 10 : 00～16 : 00 중식지참.

금주 전례 : 오경화 ① 신금식 ② 서 영
봉헌－신금식 씨 부부
차주 전례 : 오교성 ① 강주호 ② 장명애
봉헌－강주호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507,430원 □ 교무금 : 906,800원
□ 2차헌금 : 165,05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1. 청년회 : 공식미사 후.
2. 성가정회 : 차주 공식미사 후.
3. 전교주일 : 다음주 2차헌금.
4. 성서읽기 : 이사61～66장.
5. 금주 전례 : 해설－이승복 독서① 유순천 ② 김금자
봉헌－강문옥, 김병열 씨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송봉덕 독서① 양주태 ② 이석남
봉헌－양주태, 이수복 씨 부부
6. 탈상 : 최춘식(모이세) 21일.

□ 지난주 봉헌금 : 211,045원 □ 교무금 : 493,000원
□ 2차헌금 : 83,030원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10월은 전교의 달!(로사리오성월)(다음주일은 전교주일 2차헌금 있음). 1. 회의 : ① 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 포란치스코3회－오늘 오후2시. 2. 모임 : ① 전례부－오늘 저녁미사 후 ② 울뜨레아－10월17일(수) 저녁미사 후. 3. 알림 : ① 가정방문－10월17일(수)17반～20반, 10월24일(수)18반～19반 ② 레지오마리애 전단원 교육－10월18일(목) 오전9시부터, 레지오 전단원 참석바라며, 평신자도 뜻있는 분은 참석바람(회비1,000원 중식제공, 꾸리아주최) ③ 10월은 전교의 달, 예비자인도에 열성을…교리시간 매주일 공식미사 후(성인반) 매주일 오전9시(학생반). ＊ 어린이성가경연대회에서 우리어린이들이 은상 수여, 수고하신 분께 감사. 감사 : 금년추석절에 불우교우들 위하여 이십만원과 오만원, 만원 보내주신 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43,400원 □ 교무금 : 472,000원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미사시간 변경 : 14일부터 저녁미사 7시.
2. 유아 세례 신청 바랍니다.
3. 구역장・반장 모임 : 공식미사 후.
4. 청소봉사 : 효자마을.

□ 지난주 봉헌금 : 345,610원 □ 교무금 : 552,000원
□ 사제관 수녀원 신축헌금 신입 총액 : 21,874,000원 입금 : 14,693,000원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 종 충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아름다운 전례생활에 노력합시다. ＊ 주일미사에 늦지맙시다.
1. 사목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 오늘 오전10시.
3. 구역 봉사자 모임 : 오늘 저녁7시30분.
4. 반기도회 : 16일～19일 많은 참석 바랍니다. 반미사－16일 : 서교동 1반, 17일 : 서교2반, 18일 : 서교3반, 19일 : 서교5반.
5. 가정방문 : 10, 16～17일. 6. 청년연합회 월례회 : 다음주 저녁미사 후.
7. 성서모임 : 매주 수요일 교재 : 여정. 매주 금요일 교재 : 해방공동체. 저녁미사 후. 대상 : 젊은이.

＊ 금주보수비헌금액 : 1,100,000원 ＊ 현재모금총액 : 164,432,220원 ＊ 금주보수비신입액 : 50,000원 ＊ 현재신입총액 : 235,954,618원 □ 지난주 봉헌금 : 1,362,590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 병 준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환

※ 신앙쇄신 특별강론 : 오늘 공식미사중 강론－오성기 신부님. ＊ 영세지 집중교리 : 22일(월)～26일(금) 오후8시, 영세식－27일 오후5시(7시미사 없음). 1. 제대회, 4／4분기대의원 총회 : 공식미사 후. 2. 임시사목회 : 20일(토) 오후7시30분. 3. 형제회일정 : 17일(수) 오후2시30분－24가반, 3시－24나반, 3시30분－25반, 4시－20반. 18일(목) 오전10시－12반, 10시30분－6가반, 11시－6다반, 오후7시30분－15반, 8시－16, 22반, 8시30분－17, 18, 23반, 19일(금) 오후7시30분－30, 광곡, 평촌, 안생. 우음, 마음공소. 4. 성모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5. 청년회 :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6. 다음주부터는 가을 가정방문입니다. 7. 금주 전례 : 분치구. 강상근 복사－이정분, 지동호, 봉헌－서영베 부부 차주 전례 : 분치구, 강상근 복사－서영상, 오수환 봉헌－김윤곤 부부.

□ 군인주일2차헌금 : 150,530원
□ 지난주 봉헌금 : 461,610원 □ 교무금 : 442,500원

＊화산동

사제관 221-981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예비자 첫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축하드립니다).
2. 성모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가정방문 일정 : 16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4. 야외미사 : 다음주일에 있습니다.
5. 청소담당 : 이번주－겸손하신자의 모후Pr. 다음주－은총의 후개자Pr.

금주 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봉헌－한병갑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장병순 독서・봉헌－염상열 부부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훈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김 태 훈
사목회장 환 수 석

1. 오늘 울뜨레아 모임 11시미사 후.
2. 중고종합 예술제 오전10시.
3. 화요일 7시30분 미사후 견진교리, 중고생, 토요일 5시미사전.
4. 17일 오전10시30분 모니카회 데레사회.
5. 다음주 전교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6. 성지순례 티켓 구역별 배정했으니 빨리 신청하기 바랍니다.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홍 두

1. 울뜨레아 : 공식미사 후. 2. 두현공소미사 : 19(금) 오후7 : 30분.
3. 가정방문 : 16(화)－18(목) 롯데APT 가정방문.
4. 예비자 교리시작 : 주일 오전9 : 00, 수요일 오전10 : 00 오후8 : 00, 토요일 오후5 : 00 중고생.
5. 성서 여정시작 : 16(화) 아침10시 개강.

차주 모임 : 사목회, 새벽회.
금주 전례 : 해설－강진상 독서① 박종환 ② 김성주
기도－김창선, 이금연
차주 전례 : 해설－김인규 독서① 함용준 ② 이길주
기도－안남근, 조신옥

□ 지난주 봉헌금 : 615,890원 □ 교무금 : 829,000원
□ 군인주일 헌금 : 352,090원